

영광군, 전국 최초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 개발

생산비·노동력 절감 효과 탁월

신기종 농업기계 등록·특허 출원

전남지역 최대 보리 주산지인 영광군이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를 전국 최초로 개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싹보리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서면 보리재배단지에서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 최종 평가회를 열어 수확기의 성능을 선보였다.

영광군은 건강식품 가공용 새싹보리 수요 증가로 고소득을 올리려는 생산농가가 늘어나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용 수확기의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테스트와 기술을 보완한 끝에 현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를 신기종 농업기계로 등록하고 특허출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생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 소형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새싹보리가 각광받으면서 보리재배도 늘고 있다.

새싹보리는 통보리를 파종해 약 15cm 가량 자란 어린 보리싹을 말한다. 주로 분말 형태로 판매된다.

새싹보리에는 사포나린, 폴리페놀, 루테올린, 식이섬유, 아미노산10종, 미네랄12종, 필수 아미노



김준성 영광군수가 상용화를 앞둔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를 시운전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산 8종 등 45종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놓은 새싹보리 영양분 수치결과를 보면 새싹보리 100g에는 철분이 시금치의 16배, 칼슘이 우유의 4.5배,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20배, 필수아미노산이 밀의 2.2배 정도 될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다.

포도당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방

지고 배출시켜주는 '사포나린' 성분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고, 당뇨와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방지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기름진 음식을 즐겨먹는 현대인들에게 최고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영광군은 지난 2010년 1월 보리산업특구로 지정

된 보리 주산지다. 지난해 2532ha에서 6060t의 보리를 생산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며 "보다 세밀한 유지관리를 통해 농가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함평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허정임 부의장 결정



함평군의회는 정철희 전 의장이 함평군수 보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허정임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22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전반기 의장직에 허 부의장을 직무대리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결정이다.

이는 제8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의정기간이 오는 6월30일까지로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데다, 의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군의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허정임 의장 직무대리는 "군수에 이어 군의회 의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족한 능력에도 군민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직을 맡게 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무안군, 지역 농·특산물

우체국 온라인 판매 확대

무안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지방우정청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가를 위한 온라인 판로 개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무안군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계약을 체결, 우체국 소포물 내 '무안군 브랜드관'을 개설했다.

메인베너 노출 등 홍보를 강화해 무안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휴 외부 판매채널(옥션, G마켓, 11번가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 할인쿠폰 지급 등 프로모션도 10월 말까지 확대한다. 무안군은 이 행사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참여업체와 품목을 다양화해 매출 10억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택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신안군, 맨손 낙지잡이 전통어법 보전·계승한다

장인 7명에 기술장려금 200만원 지급

신안군이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들에게 기술장려금을 지원한다.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갯벌낙지 맨손어업의 전통기술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기 위해서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맨손낙지잡이 장인들에게 기술장려금을 올해부터 2년간 200만원씩 지급한다.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2018년 11월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됐다.

신안군은 맨손으로 갯벌낙지를 잡는 기술과 전통적인 어법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어업인을 대상으로 '낙지잡이 대회'를 열어 총 7명의 장인을 선발했다. 이들은 '신안군 수산물 장인'으로 지정, 올해부터 기술장려금을 분기별로 5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신안은 갯벌낙지 주산지로, 1000여어가 맨손 낙지잡이로 연간 36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현재 낙지잡이 시기를 맞아 20마리 1접 가격은 20만원 선이다.

신안군은 오는 6월 압해읍에서 '섬낙지축제'를



한 어업인이 갯벌에서 맨손으로 낙지잡이를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개최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청정갯벌에서 서식하는 낙지는 빨낙지로, 부드럽고 고소하며 찰진 것으로 유명한 당탕이, 조무침, 볶음, 호롱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녀노소 즐겨 먹을 수 있는 대표 수산물"이라고 소개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농기계 임대료 100% 감면

무안군, 4월부터 4개월간

무안군은 영농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며, 지역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농기계 이용시 1일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적기 영농 어려움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무안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무안분소와 일로·해제·운남분소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822건에 달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이 지역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농업인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